‘광주 정체성’·‘학생예원’ 새롭게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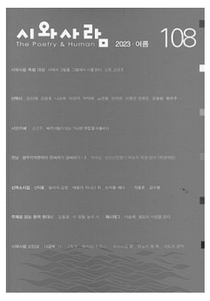
‘문학들’ ‘시와 사람’ 여름호 발간
목포 50년대 발행 잡지등 담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한 광주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지난해 열린 프린지페스티벌 연희마당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지역에서 발행되는 문예지 ‘문학들’(72), ‘시와 사람’(108)의 여름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광주를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글과, 목포에서 발행되는 학생 잡지를 조명한 글들이 눈길을 끈다.

먼저 문학들은 뉴광주리뷰에서 신혜란 서울대 교수의 ‘도시 정체성의 딜레마와 힘’을 게재했다. 광주를 문화경제의 정치라는 관점으로 연구한 적 있는 신 교수는 도시 정체성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도시 정체성은 도시의 특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이해와 설득, 마케팅 부분에서 효과가 크다가 본다. 그러나 하나의 정체성은 그것에 포괄되지 않는 부분들을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신 교수의 논리는 이렇다.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말할 때 문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문화가 문화 이외의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에 하나의 정체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본캐와 부캐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하고 현실적이다. 모순되고 충돌하는 정체성들이 공존하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도시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문화의 근본적인 힘이다. 예술로서의 문화,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도 그런 정신없음과 파편적인 것을 연결해 관련성을 만들어 내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졌다.”

신 교수는 문화예술은 옛것에 대한 파괴와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으며 삶의 방편으로서의 문화 또한 다양함의 추구가 힘을 점점 얻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저자는 광주의 정체성 가운데 예술과 돈을 결부시키지 않는 분위기가 있지만 작금은 문화의 경제적 측면도 조명받고 있다고 본다. 도시 브랜딩이 특정 집단이 이익을 계속 가져갈 수도 시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광주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광주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고민과 연결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시와사람에서는 시인인 박태일 경남대 명예교수가 1950년대 목포의 학생 잡지 ‘학생예원’을 조명한 글을 볼 수 있다. ‘경인년전쟁기 목포의 학생 잡지 ‘학생예원’’에는 전쟁기 목포 문학 외에도 광주전남 학생 문학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학생예원’에 관한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학생예원’이 허가를 받은 날은 1951년 11월 10일, 펴낸날은 1952년 1월 1일이다. ‘편집후기’에서 10월부터 학생지를 낸다고 말해 왔다고 썼다.”

당시 ‘학생예원’을 펴낸 이는 함경남도 리원 출신 수필가 강범우(1922~2019)다. “1951년부터 9월부터 고교로 올라선 목포여고(항도여중)에 몸을 담고 교사로 일했다”고 전해온다. 발행인은 정갑배였다.

“‘학생예원’은 목포의 출판자본과 교육계, 지식사회를 바탕으로 엮어낸 이채로운 매체다. 창간호를 더 잇지는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강범우가 ‘학생예원’과 함께 여섯 해나 냈다고 스스로 밝힌 ‘대한학생주보’ 또한 오늘날 실체를 볼 수 없다. 강범우가 이승을 뜬 해가 2019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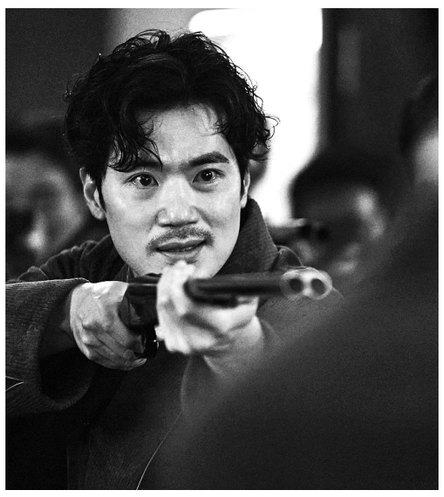
저자는 ‘학생예원’은 전쟁기 ‘전국적으로’ ‘거의’ 볼 수 없는 이른 시기 학생 ‘교양지’였다고 본다. “원고 ‘모집 내용’은 학생 교양지라는 뜻에 맞게 창작·수필·시·동요·동화·소년소설과 같은 문학 갈래뿐 아니라 학교 학습 소식·학습 내용 소개까지 들었다. 광복기나 전쟁기 우리 어린이청소년 잡지에서는 흔하지 않은 갈래다.”

사실 중고생을 위한 잡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작가의 정보들이 담겨 있다. 작가들의 문학 출범시기 성향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다.

저자는 “목포의 ‘학생예원’ 또한 전남·광주 지역 문학은 물론, 우리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다가서는 자리에서 빠트리지 말고 기억해야 할 매체”라고 강조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강우 “화 난 수사자처럼 연기했죠”

영화 ‘귀공자’서 악역 맡아 “서부 영화 보면서 준비”… 내일 개봉



“화가 나 이글이글하는 수사자를 생각하면서 연기했죠.”

1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강우〈사진〉는 영화 ‘귀공자’에서 자신이 펼친 연기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박훈정 감독이 연출한 액션 영화인 ‘귀공자’는 오는 21일 개봉한다. 이 작품은 필리핀에 살던 한국계 혼혈인인 ‘마르코’(강태주 분)가 한국에 오면서 정체불명의 사나이 ‘귀공자’(김선호)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쫓기는 이야기다.

김강우는 마르코를 쫓는 재벌 2세 ‘한이사’ 역을 맡았다. 한이사는 목적 달성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태연하게 장총을 꺼내 사람을 사살하는 잔인한 캐릭터다.

“감독님은 제게 한이사를 이렇게 설명해준 것 같아요. 완전 ‘상남자’에 ‘마초’라고요. 우리나라 영화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캐릭터라 서부극을 떠올렸죠.”

김강우는 한이사 역을 준비하면서 미국 서부 영화를 많이 봤다고 한다.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주연의 영화 ‘장고: 분노의 추적자’(2013)도 그중 하나다.

한이사는 악한 인물이지만, 김강우는 자기 역할을 굳이 악역으로 규정하고 연기하진 않았다.

“한이사는 욕망이 너무 커 다른 인물에게 해를 끼치죠. 그렇게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보고 연기했어요. 제가 그를 악역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연기가 너무 전형적으로 흐를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연기할 땐 그런 생각은 배제했어요.”

김강우는 ‘귀공자’에서 김선호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은 박 감독의 차기작 ‘폭군’에도 나란히 캐스팅됐다.

김강우는 김선호에 대해 “굉장히 장점이 많은 배우다. 멜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알고 있었는데 액션도 굉장히 잘했다”며 칭찬했다.

이어 “(김선호는) 연극을 많이 했고 무대 경험도 있어 자기 캐릭터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다”며 “그런 분과 상대 배우로 두 작품을 연속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훈정 감독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한 분이라 현장에서도 그럴 줄 알았는데 시원시원하게 진행하는 느낌이었다”며 “배우들의 의견도 많이 수용하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김강우는 ‘귀공자’에 대해 “귀여운 느낌의 영화”라고 했다. ‘귀공자’가 인정사정없는 액션이 난무하는 영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표현이다.

“이 영화는 단순해서 좋았어요. 캐릭터들이 각각 가진 목적이 단순하잖아요, 자기 지향점도 확실하고. 중간에 스토리가 꼬이지 않고 직진하는 영화예요. 저도 그런 영화를 좋아하죠.” /연합뉴스

뉴진스, 새 미니음반 ‘겟 업’…선공개곡 ‘슈퍼 샤이’
있지, 8개월 만에 컴백…다음달 ‘킬 마이 다웃’ 발매

걸그룹들의 음반 발매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뉴진스는 다음 달 21일 두 번째 미니음반 ‘겟 업’(Get Up)으로 돌아온다. 이들은 앞서 다음 달 7일 선공개곡 ‘슈퍼 샤이’(Super Shy) 등을 발표한다.

19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따르면 이번 새 미니음반에는 트리플 타이틀곡 ‘슈퍼 샤이’·‘ETA’·‘쿨 위드 유’(Cool With You)를 비롯해 ‘뉴 진스’(New Jeans), ‘겟 업’(Get Up), ‘ASAP’이 수록된다.

뉴진스는 지난해 데뷔 직후 ‘어텐션’(Attention), ‘하이프 보이’(Hype Boy), ‘쿠키’(Cookie)를 히트시키며 4세대 걸그룹 열풍의 중심에 섰다. 이들은 이어 ‘디토’(Ditto)와 ‘OMG’도 성공시키며 신드롬급 인기를 누렸다.

뉴진스는 신보 수록곡 가운데 ‘슈퍼 샤이’와 ‘뉴 진스’를 다음 달 7일 먼저 공개한다. 또 6곡 전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파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선공개곡 ‘뉴 진스’ 뮤직비디오는 유명 애니메이션 ‘파워퍼프 걸’과 협업해 제작했다.

그룹 있지(ITZY)도 다음 달 31일 새 미니 음반 ‘킬 마이 다웃’(KILL MY DOUBT)을 발매한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19일 밝혔다.

미니 6집 ‘체셔’(CHESHIRE) 이후 8개월 만에 발매하는 이번 신보에는 타이틀곡 ‘케이크’를 비롯해 ‘벳 온 미’(BET ON ME). ‘논 오브 마이 비즈니스’(None of My Business), ‘브래티’(Bratty), ‘사이킥 러버’(Psychic Lover), ‘킬 샷’(Kill Shot) 등 총 6곡이 담긴다.

타이틀곡 ‘케이크’는 앞서 트와이스의 히트곡 ‘우아하게’, ‘치어업’, ‘TT’, ‘라이키’ 등을 만든 프로듀싱 그룹 블랙아이드필승이 작사, 작곡, 편곡을 맡았다. /연합뉴스

2023 호남한국학 강좌·학술대회 본격화

한국학호남진흥원, 강좌 6개·학술대회 7개 단체 선정

광주시 남구 항일정신과 독립운동가, 영산강 유역의 역사 재조명, 희방연의 주인 면앙정 송순의 학문과 활동….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호남진흥원)이 올해 선정한 호남한국학 강좌와 학술대회 사업 가운데 일부분이다.

호남진흥원이 2023년 호남한국학 강좌 및 학술대회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호남진흥원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전남 완도문화원 등 강좌 6개 단체, 면앙정 송순 기념사업회 등 학술대회 7개 단체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광주광역시 남구 항일정신과 독립운동가, 영산강 유역의 역사 재조명, 희방연의 주인 면앙정 송순의 학문과 활동 등 호남의 지역사를 찾아가는 강좌와 학술대회에 초점을 맞췄다.

호남한국학 강좌와 학술대회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천득염 원장은 “이번 사업을 매개로 호남권 호남한국학 연구단체의 더 많은 연구는 물론 시·도민이 함께하는 기회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다채로운 강좌와 학술대회를 통해 호남학 지평이 확장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